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박차

한국전력과 기업 맞춤형 '스케일 업' 추진

고효율태양광·ESS 등 특화 15개 기업 협약

나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특화기업의 맞춤형 성장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나주시는 지난 1일 한전 본사 비전홀에서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 스케일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 시험·인증, 글로벌진출지원 등 기업의 자율적 육구를 반영한 8개 분야 맞춤형 성장지원을 제공한다.

사업 대상은 나주 강소특구 내 기업 또는 특화분야인 고효율 태양광, 신재생 운전·유지보수(O&M),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나주시 관내 중소기업으로 기업 당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참여 기업을 수시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특화분야에 선정된 중소기업 15개 기업 대표·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다.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 받은 나주 강소특구는 한전을 기술 핵심기관으로 소규모 고밀도 기술사업화 거점을 구축하는 국내 최초 '공기업형' 연구개발특구이다.

면적은 에너지기술연구소가 들어선 나주 혁신산단과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등 총 1.69㎢ 규모다.

특구 내에선 고효율 태양광, 신재생 운전·유지보수(O&M),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입주 기관, 연구소기업, 첨단기술 보유 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정부 주관의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과제 참여, 각종 실증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매년 최대 6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나주시와 한전은 지난 4월 혁신도시에서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 Scale Up 사업 협약



나주시와 한전은 지난 1일 한전 본사 비전홀에서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 스케일업 협약식을 가졌다. /나주시 제공

산·학·연 혁신성장 생태계 확산과 지역 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한 'Do Dream +센터'를 개소, 강소특구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강소특구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특화분야 유망 중소기업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가겠다"며 입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전 김숙철 기술혁신본부장은 "강소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스케일업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한전·전남도·나주시·중소기업에너지기술마켓·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 스케일업 사업 수시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나주=이재순 기자

고흥, 우주산업 전략과제 발굴 온 힘

우주기업 특화 산단 조성 등 집중 논의

고흥군이 전남도와 함께 나로우주센터를 기반으로 '우주산업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전략과제 발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과기부가 최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방안과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맞춰 고흥군과 전남도는 국내 우주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기획·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최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우주산업의 동향 및 전망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의 목표와 기본방향, 구체적 추진과제 등을 다뤘으며, 특히 추진과제로 우주기업특화 산단 조성,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우주기업 지원센터 건립 등을 집중적

으로 논의했다.

고흥군은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우주산업에 대한 고흥의 장·단점,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 우주관련 기업 유치, 우주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 현안 과제를 집중 분석해 국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고흥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정부와 논의하고, 고흥군을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결과가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취재본부=진종연 기자

무안연꽃축제, 온라인 축제 '홍행'

지난달 22일 막을 내린 제24회 무안연꽃축제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축제 형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연꽃TV 유튜브는 현재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축제 마지막 날 기준으로 32만 회에 달하던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36만 회로 4만 회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축제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실감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이처럼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축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민 참여형 콘텐츠로 운영된 무안에서 온

(on) 연꽃편지와 연꽃가요제에 대한 온라인 평가가 각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를 심사기준으로 삼아 진행되면서 주민이 축제 참여자이자 적극적인 홍보자로 나선 것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참가자 본인 외에도 가족과 지인, 읍·면민과 향우 등이 합심해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군은 지난날 30일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연꽃가요제'는 온라인 심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윤남면 김상호씨가 대상을 받았고, 무안읍 문정수씨가 금상, 일로읍 정범수씨가 은상을 받았으며 자녀 다섯명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출연해 흐뭇한 감동을 주었던 김순철씨 가족이 인

기상을 받았다. /무안=박주현 기자

담양, 대숲맑은 조기햇쌀 수확 시작

담양의 '대숲맑은 조기햇쌀'이 최근 봉산면 삼지리 농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벼 베기에 들어갔다.

지난해는 여름철 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했지만, 올해는 기상조건이 좋아 평년대비 수확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수확한 품종은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전남3호(조명1호)의 조생종벼로, 병해충에 비교적 강하고 밥맛이 매우 뛰어나다. 올해 조기햇쌀단지 47농가, 41.3ha에서 290여 톤의 쌀을 생산, 5

억여 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숲맑은 조기햇쌀단지에서 생산된 햇쌀은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전량 산물벼로 수매해 소포장(4kg, 10kg) 단위로 가공,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군은 저온으로 인한 냉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조기햇쌀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햇쌀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육묘 구입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담양=정일민 기자

광양 '라벤다운엔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획득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에 있는 '라벤다운엔필'이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사업자 인증'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6차산업 사업자 인증이란 농산물 재배생산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유통, 체험·관광·서비스를 복합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 중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라벤다운엔필의 김선영 대표는 2015년부터 부모님께서 키우셨던 라벤다의 판로를 모색하면서 라벤다를 원료로 천연화장품을 만들고, 2018년 브랜드를 런칭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라벤다운엔필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재생효과가 높은 라벤진이라는 라벤더 추출물을 이용한 라벤더오일부터 비누, 수분 세럼, 폼클렌저, 샴푸 등 천연화장품 등이 있다. 라벤다운엔필은 천연화장품, 라벤더 수제청, 젤리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지난달 28일부터 사의재 저잣거리에서 조만간(조선을 만난 시간)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 사의재 '조만간 프로젝트' 새출발

11월 14일까지 매주 주말 운영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오는 11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사의재 저잣거리에서 조만간(조선을 만난 시간)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프로젝트는 하루에 두 번 30분간 진행되는 마당극 '정해인이 좋-소' (정약용 선생님이 해박한 지식과 인생을 배우고 간 그 곳, 강진이 좋-소)와 12개의 캐릭터 재현 꼭지 코너로 진행된다.

특히,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군민

들로 구성됐으며 전문 배우 못지 않은 열정과 자부심으로 사의재를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산의 유배를 해학과 교훈으로 풀어낸다. 지난 5월 시작으로 12회 공연을 진행해온 조만간 프로젝트는 휴식기 종료로 인해 잠시 휴식기를 갖고 재정비를 끝낸 지난달 28일부터 더욱 풍성해진 내용으로 공연을 다시 시작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클릭! 고흥 속으로



장흥 회진면, 해양쓰레기 정화의 날 운영

장흥군 회진면은 최근 어촌계,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면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정화의 날'을 운영, 태풍에 의해 해안가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날 수거한 페스티로폼, 페어구·어망 등 10여 톤 분량의 해양쓰레기는 회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처리요역을 발주해 조만간 처리할 계획

이다. 김형재 회진면장은 "지역 특산품인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가 주요 소득원인 만큼 청정해역을 만들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특히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다양한 활동을 펼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광양 봉강면, 한부모가정 주거환경 개선

광양시 봉강면이 최근 한부모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5회에 걸쳐 실시된 봉사활동에는 포스코도배재능봉사단과 선사인 로타리클럽,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봉강면 맞춤형복지팀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포스코도배재능봉사단은 집 내부 벽

공사와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설치했으며, 선사인로타리클럽은 페인팅 작업, 가구와 생활품 후원 등을 지원해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광석 봉사단장은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보람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무안, 읍·면 순회 과제활동 교육

무안군은 오는 9일까지 한국생활개선 무안군연합회 회원 171명을 대상으로 읍·면별 순회 과제활동 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과제활동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콩알메주를 활용한 보리막장과 전통고추장 담그기 이론·실습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과제활동에 참가한 한 회원은 "이번

교육은 전통 장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장 담그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생활개선 무안군연합회는 9개 읍·면 397명의 회원으로 조직된 농촌지역 대표 여성학습단체로 봉사활동, 지역 농·특산물 홍보, 농외소득 창출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안=박주현 기자